

열네번째 이야기

온비아를 마치고

BEE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작년 여름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에서였다. 그전에는 BEE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BEE로 인도하셨다. 그 계기는 어느 날 QT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니?”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좋아해요”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학’에 보낼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정말 어리둥절하면서도 세상의 부모가 해 주시지 못한 것을 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엄마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해야 했으므로 딸 둘을 대학에 보낼 엄두는 내지도 못하셨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바로 직장을 다녀서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 아닌 의무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였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말 한다 한들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 속에, 꿈조차 꾸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는 한번도 나에게 물어 보지도 않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BEE의 한 과목이라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고 BEE가 ‘성경연장교육(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의 약자로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


기 위하여 찾아가서 교육하는 이동신학교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점관리도 대학교 학점처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확실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을 통해서 다시 마주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큰 아이 7살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다. 세미나는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때 만난 한 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들과 함께 온비아 1년 과정을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새로 만난 자매와 양재에서 공부한 한 자매와 더불어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부천반 7명 학생들은 나에게 특별한 BEE 동기가 되었다. 한 형제님께서 매주 찬양을 준비하여 기타와 함께 BEE 세미나 시간을 열어 주셨는데 마치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과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기타 치며 찬양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울컥했다. 그리고 1년 동안 조장을 맡은 자매는 매일 우리 BEE 동기들을 위해서 화살중보기도를 인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었고 우리들은 어느덧 하나님 안에 끈끈한 결속력과 서로 격려하고 우정을 주고받는 한 식구가 되어 있었다.

갈라디아서를 출발하면서 내 안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 복음보다 율법적인 것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도 튼튼히 해야 하는데, 그 동안 커피를 제대로 끊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끊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시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깨어진 부분을 알게 하시고, 속에 숨겨져 있던 엄마와의 깨어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함께 한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고, 온비아 1년 과정 말씀 공부한 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길 수 있게 하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한 것을 test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BEE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였고 회복시키시며 믿음을 성장케 하셨다. 그리고 결국 말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셨다.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여러 분의 인도자님들과 FA님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들이었으며,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BEE를 통하여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믿음의 영적 군사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글: 노경윤, 편집: 이경주)

글쓴이 노경윤자매는요.
 온누리교회에 2015년 9월에 등록했고, 가족은 남편 김성원, 중3 딸 김예희, 초4 아들 김신영입니다. 현재 부천온누리 소망공동체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BEE 소식

- 6월 9일 온비아 일년 과정을 끝낸 분들이 모여 온비아 수료예배를 가졌습니다. 딘후 2:1 - 6을 통한 말씀 선포와 BEE 소개, 기본 과정 이후의 심화 과정에 대한 소개 등의 시간을 갖고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계속 우리의 동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